2018. 3. 9. (금) 언론보도

국민일보 2018년 3월 9일 금요일 021면 사람들

경기도-스위스 리기산, 평화누리길 명소화 협력

리기산 측 현지 답사 후 업무협력 추진 방안 협의

평화누리길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해 경기도와 스위스 루체른주 리기산(Mt. Rigi)이 손을 맞잡는다.

경기도는 스위스 리기산의 로저 요스 마케팅 세일즈팀장이 양 지역 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경기도 평화누리길 및 DMZ 일원을 8일부터 1박2일간 답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평화누리길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양측 간 교류협력을 스위스 리기산 측에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산들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해발 1798m의 리기산은 하이킹과 스키 등 산악 레저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다.

요스 팀장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8코스, 임진각평화누리, 도라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등 DMZ 일원 명소들을 둘러보며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과 업무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도는 평화누리길-리기산 간 '자매의 길' 파트너십을 맺어 양 지역 트레킹 코스 방문객의 교류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양측이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는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파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임순택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왼쪽)이 8일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찾은 스위스 리기산 로저 요스 마케팅 세일즈팀장(오른쪽)에게 평화누리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세계일보
2018년 3월 9일 금요일 Z10면 지방종합

평화누리길 글로벌 명소화 추진
경기도, 스위스 리기산과 협력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경기도는 '산들의 여왕'이라 불리는 스위스 관광명소 리기산과 평화누리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리기산은 스위스 중부 루체른주에 있는 1798m 높이의 산으로, 하이킹이나 스키 등 산악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다.

도는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간 '자매의 길' 파트너십을 체결해 두 지역 트레킹 방문객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위스 리기산의 로저 요스 마케팅 세일즈 팀장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DMZ(비무장지대) 일원을 답사한다.

요스 팀장은 이번 방문에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8코스, 임진각 평화누리, 도라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등 DMZ 일원 명소들을 둘러보고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업무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세계적 명산 관계자의 평화누리길 방문은 리기산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리기산 측은 스위스를 방문하는 한국 방문객이 증가하고 한국 역시 스위스처럼 산악지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트레킹 코스와 협력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평화누리길·리기산 간 '자매의 길' 파트너십을 맺어 양 지역 트레킹 코스 방문객의 교류를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경인일보 2018년 3월 9일 금요일 017면 사회

평화누리길 '글로벌 트레킹 관광명소화'

산악지형 닮은꼴… 도-스위스 리기산 파트너십 교류

경기 북부지역 '평화누리길'이 스위스 리기산(Mt. Rigi)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변신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8일 스위스 리기산의 로저 요스(Roger Joss) 마케팅 세일즈 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평화누리길 및 DMZ 일원을 답사했다고 밝혔다.

'산들의 여왕'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리기산은 스위스 중부 루체른주에 위치한 1천798m 높이의 산으로, 하이킹이나 스키 등 산악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번 답사는 도가 한국이 스위스처럼 산악 지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평화누리길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해 지난해 스위스 리기산 측에 제안해 이뤄졌다.

로저 요스 팀장은 이틀간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8코스, 임진각 평화누리, 도라 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등 DMZ 일원 명소들을 둘러보며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업무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도는 평화누리길-리기산 간 '자매의 길' 파트너십을 맺어 양 지역 트레킹 코스 방문객의 교류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서울신문 2018년 3월 9일 금요일 014면 종합

DMZ 평화누리길, 스위스 리기산과 '자매의 길'

경기, 글로벌 명소화 추진
공동 마케팅 등 교류 협력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만든 '평화누리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산들의 여왕'으로 불리는 스위스 리기산과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리기산은 스위스 중부 루체른주에 있는 해발 1798m 높이의 산으로, 하이킹이나 스키 등 산악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다.

경기도는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간 '자매의 길' 파트너십을 체결해 두 지역 트레킹 방문객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류협력의 하나로 로저 요스 리기산 마케팅 세일즈 팀장이 이날 방한했다. 그는 이날부터 이틀간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8코스, 도라전망대,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캠프 그리브스 등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DMZ 일대를 둘러보고 경기도와 업무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평화누리길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양측 간 교류협력을 스위스 리기산 측에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리기산 측은 최근 스위스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 역시 스위스처럼 산악 지형이 많다는 점을 감안, 한국 트레킹 코스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경기도의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 어메이산(峨眉山)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한국·중국·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연계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으로 평화누리길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평화누리길 글로벌 명소화를 위해 국제적 협력 체계를 다져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일보 2018년 3월 9일 금요일 002면 종합

'평화누리길' 글로벌 명소화 첫걸음

道·스위스 리기산 교류협력
세일즈팀장 방한 현지 답사
'자매의 길' 파트너십 체결

'평화누리길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경기도와 스위스 리기산(Mt. Rigi) 간의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스위스 리기산의 로저 요스(Roger Joss) 마케팅 세일즈 팀장이 8일과 9일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평화누리길 및 DMZ 일원을 답사 중이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평화누리길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양측 간 교류협력을 스위스 리기산 측에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로저 요스 팀장은 양일간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8코스, 임진각 평화누리, 도라 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등 DMZ 일원 명소들을 둘러보며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업무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도는 평화누리길-리기산 간 '자매의 길' 파트너십을 맺어 양 지역 트레킹 코스 방문객의 교류를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양측이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는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임순택 도 DMZ정책담당관은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평화누리길과 교류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평화누리길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들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리기산은 스위스 중부 루체른 주에 위치한 1천798m 높이의 산으로, 하이킹이나 스키 등 산악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다. 이선호기자

경기신문 2018년 3월 9일 금요일 002면 종합

평화누리길 세계화… 스위스 리기山과 협력

리기산 마케팅 세일즈 팀장 방한
道, 합동 워크숍 등 교류 활성화

경기도는 평화누리길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해 스위스 리기산(Mt. Rigi)과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들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리기산은 스위스 중부 루체른 주에 있는 해발 1천798m 높이의 산으로, 하이킹이나 스키 등 산악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다.

도는 평화누리길과 리기산 간 '자매의 길' 파트너십을 맺어 두 지역 트레킹 방문객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 협력사업 구상을 위한 기관 합동 워크숍, 유관행사 초청교류 활성화, 세계 트레일 국제행사 공동참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로저 요스 리기산 마케팅 세일즈 팀장이 방한, 이날부터 이틀간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8코스, 도라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등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둘러보고 도와 업무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리기산 측은 스위스를 방문하는 한국 방문객이 증가하고 한국 역시 스위스처럼 산악지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트레킹 코스와 협력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순택 도 DMZ정책담당관은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평화누리길과 교류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평화누리길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차근차근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기호일보 2018년 3월 9일 금요일 005면 종합

평화누리길 글로벌 명소화 시동

스위스 리기산 관계자 道 방문… 교류 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가 평화누리길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스위스 리기산(Mt. Rigi)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스위스 리기산의 로저 요스 마케팅 세일즈 팀장이 8일과 9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평화누리길 및 DMZ 일원을 답사한다.

이번 방문은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평화누리길의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양측 간 교류협력을 스위스 리기산 측에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리기산 측은 최근 스위스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 역시 스위스처럼 산악 지형이 많다는 점을 감안, 한국 트레킹 코스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도의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 바 있다. 로저 요스 팀장은 양일간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8코스, 임진각 평화누리, 도라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등 DMZ 일원 명소들을 둘러보며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업무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도는 평화누리길-리기산 간 '자매의 길' 파트너십을 맺어 양 지역 트레킹 코스 방문객의 교류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양측이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는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임순택 도 DMZ정책담당관은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관광대국이라는 점에서 평화누리길과 교류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평화누리길 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차근차근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